

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
전북연구원(T.063-280-7100/F.286-9206)
<http://www.jthink.kr>

- **문 의** : 연구본부장 이강진 연구위원
(063-280-7141)
- **담 당** : 산업경제연구부 조원지 부연구위원
(063-280-7194)

보도시점: 2021년 12월 27일(12시)부터

다양한 꿈과 일상이 실현되는 전북만의 귀농귀촌교육!

[사진 및 영상자료 : 없음]

- 전북연구원(원장 권혁남)은 정책브리프 ‘전라북도 귀농귀촌인의 농촌 생활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 방향 및 운영방안’(통권53호)을 발간하고, ‘영농기술 중심의 귀농귀촌교육에서 탈피해 농촌지역사회에서 주민과의 협력과 상호교류를 통해 귀농귀촌인의 농촌생활역량을 강화하는 전북형 귀농귀촌교육’을 제안하였다.
- 귀농귀촌교육은 다양한 기관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유사한 주제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어 다양한 동기와 목적으로 농촌으로 이주하는 도시민의 교육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기 어려운 실정이다.
- 귀농귀촌은 단순히 ‘도시에서 농촌으로’ 이주하는 것이 아니라, ‘일터, 쉼터, 삶터, 공동체터’인 일상공간의 이주로 개인과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이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.
- 도시민이 성공적인 귀농귀촌을 위해 ‘농업인’이 아닌 농촌사회에서 생

활하는데 필요한 정보, 기술, 태도 등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.

- 귀농귀촌교육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하며, 이에 맞게 귀농귀촌교육의 내용과 교육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.
- 연구책임을 맡은 조원지 박사(산업경제연구부)는 “도시민이 농촌생활에 필요한 태도, 기술, 지식 등 생활역량은 단기간에 체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.”며, “귀농귀촌교육은 도시민의 농촌생활역량 강화를 위한 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.”고 언급하였다.
- “특히, 귀농귀촌교육이 도시민에게 일방향적으로 농촌사회 문화, 생활기술 등을 전달하기보다 농촌 지역사회 안에서 지역주민과의 협력과 상호교류를 통해 생활역량을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. 이를 위해 체계적으로 교육을 운영·관리할 수 있는 혁신적인 교육체계와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”고 강조하였다.
- 귀농귀촌인과 청년들이 농촌 지역사회에서 현장중심의 실용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며, 이에 따라 전라북도 귀농귀촌인의 농촌생활역량 강화를 위한 새로운 귀농귀촌 교육방향, 교육과정 유형,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.